

2차전지, 자동차 가격의 10% 수준

현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지 비중 커 ... 국산 부품 사용 대폭확대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되는 2차전지 가격이 자동차 가격의 10% 수준엔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용철 현대차 사장은 7월8일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된 2차전지 가격이 자동차 가격의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되는 2차전지 가격이 매우 높아 사고시나 수명이 다했을 경우 교체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돼 왔다.

국산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사고시 수리 비용도 상당히 낮추었으며, 트렁크에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패키징에 신경써 후방에서 충격을 받아도 대형사고가 아니면 사고비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공공기관과 기업고객보다도 일반 고객의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2009년 7500대, 2010년 1만5000대를 판매 목표로 잡고 있다.

양용철 사장은 하이브리드 택시 출시와 관련해 "택시는 시내 주행이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면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다"면서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8>